

여수시,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농어촌·도심 고지대·도서지역 영유아 대상
육아정보·놀이교실...열악한 보육 여건 개선



여수시가 농어촌지역 영유아 가정의 열악한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난감 및 놀잇감을 제공해 아이와 부모가 놀이를 통해 따뜻한 교감을

하도록 돕는다.
농어촌 지역은 장난감 운영요원이 신청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장난감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다양한 놀이법과 육아정보를 알려주는 등 맞춤형 육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지역은 장난감 택배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은 모두 무료

다.
이용대상은 농어촌, 도서지역, 도심 고지대 거주 만 5세 이하 영유아나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이다.
아이나래 달리는 장난감나라도 운영을 재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부모들의 가정 보육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할 수 있으며, 다자녀는 자녀수만큼 대여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등록 후 장난감대여 품목을 직접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도 대형차량을 이용한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도입하며 승합차를 도입해 차량 접근이 어려웠던 농어촌 및 도심 고지대 지역을 직접 찾아가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보육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서구,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광주 서구는 지난 20일 서구청에서 2020년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표창 수여식은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수상자 6명을 비롯해 장애인시설·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패 전달, 기념촬영,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표창은 △(주)엠텍정보 정성철 대표 △(주)대호안전관리공사 박수웅 대표 △(주)우연시스템 윤우현 대표 △아미스(주) 김우열 대표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이

중 대표 △정가네집밥뷔페 박은정 대표에게 수여됐다.
특히, 이날 표창을 받은 ㈜엠텍정보 정성철 대표는 이번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 2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으며, 정가네집밥뷔페 박은정 대표도 장애인시설 이용자에게 제공해온 따뜻한 한끼를 지속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업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주변의 소외된 장애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라 기자

광주 장애인복지관 2곳에 장애아동 놀이공간 조성...9월 개장

광주시-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 놀권리 업무협약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등 2곳에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세계적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과 장애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놀권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시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 놀권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광주시장애인중

합복지관과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 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장애아동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감각·시각적 놀이공간을 조성한 후 장애인복지관에 기부한다.
광주시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행정적 지원, 관리, 운영, 홍보를 진행한다. 시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5월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시작해 9월 조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 182명(아동17, 성인 165)을 대상으로 놀이공간과 휴게공간 공존여부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감각·시각적놀이,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안전기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영범 기자

전남도 ‘장한 장애인상’에 여수 정찬우씨 선정

전남도는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한 장애인상’과 ‘장애인복지 유공’ 도지사 표창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한 장애인 상’은 신체·정신적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에 성공한 모범적인 장애인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08년 시상을 시작한 이래 13명이 수상했다.
올해는 전남 여수 소재 ㈜하이프라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찬우 사



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씨는 발달장애를 가졌으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해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수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여수지역 장애인자조모임에서도 장애인 권리옹호와 인식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허성은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견된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